

# 2017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

《미국 뉴욕 문화예술 탐방》  
2017. 9. 5. ~ 9. 12.



## 목 차

<b>CHAPTER 01</b> 연 수 개 요	1. 연수 목적 ..... 3 2. 추진 방침 ..... 3 3. 연수 개요 ..... 4 4. 추진 일정 ..... 4 5. 연수 일정 ..... 5
<b>CHAPTER 02</b> 프 로 그 램 구 성	1. 방문국가 및 도시 소개 ..... 6 2. 공연장 · 문화공간 ..... 8 3. 미술관 · 박물관 ..... 11 4. 도시재생 현장 ..... 14 5. 뉴욕의 공연예술, 브로드웨이 ..... 16 6. 현지 관계자 간담회 ..... 18
<b>CHAPTER 03</b> 연 수 결 과	1. 연수 성과 ..... 19 2. 참가자 후기 ..... 19 3. 연수 단체사진 ..... 21
<b>별 첨</b>	참가자 연수보고서 모음

# CHAPTER 01

## 연 수 개 요

### 1. 연수 목적

- 1) 17개 광역시·도 자치단체 및 문화재단 관계자의 해외 선진 문화예술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전문역량 강화 및 창의성 제고
- 2) 세계 문화예술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뉴욕의 문화예술공간 및 현장 탐방을 통해 예술 행정가로서의 국제 감각 함양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성 강화

### 2. 추진 방침

- 1) 참가대상 :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회원기관 관계자
  - ① 17개 광역시·도 및 문화재단 관계자
    -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담당자(실무자 또는 담당 부서장)
    - 지역협력형사업 담당자(실무자 또는 담당 부서장)
  -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예술지원(지역협력형)사업 관계자
- 2) 선정방법
  - ① 회원기관 대상으로 1차 사전 수요조사 실시(지역별 참여계획 수요조사)
  - ② 기관별 참가 신청자 통보 요청(공문 및 참가신청서, 서약서 수령)
  - ③ 최종 참가자 및 참가비용 확정통보(한지협→참여기관)
- 3) 비용지원
  - ① 참가자(참여기관) 부담 : 기관별 내규 및 여비규정에 따름
    - 왕복 항공료, 숙박비, 일정 중 6식 내외 식사, 차량비용, 공식일정 외 비용 등
    - 각 기관별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참가자의 일비, 식비(현지활동비)는 별도 부담
  - ②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지원 : 1인 60만원 상당 지원
    - 공연관람 및 미술관 입장료, 여행자보험, 간담회비 등

### 3. 연수개요

- 1) 일 정 : 2017. 9. 5.(화) ~ 9. 12.(화) / 6박 8일
- 2) 연수국가(도시) : 미국 뉴욕
- 3) 주요내용
  - 뉴욕현대미술관(MoMa), 메트로폴리탄 등 미술관, 박물관 탐방
  - 링컨센터, 뉴욕 공립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, 문화시설 탐방
  - 첼시 미트페킹 디스트릭트, 첼시마켓, 거버너스 아일랜드 등 뉴욕의 지역재생 현장 탐방
- 4) 참가자 : 총 18명(11개 재단, 16명, 한지협 2명)

연번	소속기관	성 명	연번	소속기관	성 명
1	서울문화재단	이주영	10	충북문화재단	정상용
2	부산문화재단	서환규	11		김병만
3		정연승	12	전남문화관광재단	임해선
4	인천문화재단	박원숙	13	경남문화예술진흥원	곽기출
5	대전문화재단	안수희	14		이한솔
6	세종시문화재단	최영희	15		황덕용
7	강원문화재단	고성은	16	제주문화예술재단	김지혜
8		최정화	17	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	차화준
9	충남문화재단	정기훈	18		김선형

### 4. 추진 일정

- 1) 사전 수요조사 : 2017. 5. 31.(수) ~ 6. 5.(월)
- 2) 연수계획 알림 및 참가자 통보요청 공문발송 : 2017. 6. 27.(화)
- 3) 참가자 및 연수계획 확정통보 공문발송 : 2017. 8. 1.(화)
- 4) 연수 사전워크숍 및 성과제고를 위한 사전워크숍 : 2017. 8. 29.(화)
- 5) 연수 프로그램 진행 : 2017. 9. 5.(화) ~ 9. 12.(화) / 6박 8일

## 5. 연수 일정

일 자	일 정
제1일 9/05(화)	인천 국제공항 출발/뉴욕 JFK공항 도착 ▶ 맨하탄 시내 지역 탐방 ·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, 라커펠러 센터, 세인트패트릭 성당 등
제2일 9/06(수)	▶ Lincoln Center [링컨센터] 내부투어 ▶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-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▶ The Guggenheim Museum - 구겐하임 미술관 ▶ [공연관람] SLEEP NO MORE
제3일 9/07(목)	▶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- 휘트니 미술관 ▶ 뉴욕 문화탐방 : 지역재생 사례 탐방 · 하이라인파크,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· 뉴욕의 대표적 갤러리 지구인 첼시갤러리 및 첼시마켓
제4일 9/08(금)	▶ Governors Island 방문 ▶ 911 메모리얼 파크 ▶ 브루클린 지역 : 맨하탄 브릿지, 브루클린 브릿지, 덤보지역의 갤러리 등
제5일 9/09(토)	▶ The Museum of Modern Art(MoMA) - 뉴욕 현대미술관 ▶ [공연관람] 브로드웨이 뮤지컬 · '오페라의 유령', '킨키부츠' 등 ▶ 타임스퀘어, 한인타운 등
제6일 9/10(일)	▶ 맨하탄 시내 : 월가, 소호지역, 그리니치빌리지 등 ▶ 현지 전문가 미팅 : JSAC NewYork 박준식 대표 ▶ New York Public Library [뉴욕 시립도서관] 방문 ▶ Bryant park 산책 및 주변 문화시설 탐방
제7일 9/11(월)	▶ 뉴욕 JFK공항 출발
제8일 9/12(화)	▶ 인천 국제공항 도착

## CHAPTER 02

### 프로그램 구성 (연수 세부 내용)

#### 1. 방문국가 및 도시 소개

##### 1) 방문국가 개요

- 공식명칭 : 아메리카 합중국(The United States of America)
- 인구 : 319,416,300명(2014년 기준)
- 위치 : 북아메리카,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연안,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
- 수도 : 워싱턴 D.C
- 건국일 : 1776년 7월 4일
- 통화 : US 달러(USD, \$)



- 미국의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(The United States of America)으로, U.S 또는 U.S.A라고도 불리며, 독자적인 헌법과 의회를 갖춘 50개의 자치구와 한 개의 수도구(워싱턴 D.C.)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
- 면적은 9,826,675km<sup>2</sup>로 한반도의 42배이며 세계에서 러시아, 캐나다,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
- 아메리칸 인디언인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옮겨온 이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백인 66.8%, 중남미계 15.1%, 흑인 12.8%, 아시아계 4.4%, 원주민 0.9%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이민 국가
-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부국으로, 국민총생산·지하자원 등의 면에서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며, 자본주의경제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여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음
-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가 월스트리트(Wall Street),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 연합기구 UN(United Nation), 외화 안정을 도모하는 국제통화기금(IMF, International Monetary Fund)이 미국에 위치해 있고, 영화 산업의 중심지 할리우드(Hollywood), 세계 최대의 관광도시 라스베이거스(Las Vegas) 등 세계의 정치, 경제,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음

## 2) 미국 뉴욕

-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로, 미국의 독립 13개 주 중의 하나인 뉴욕 주에 속하며 뉴욕 시(New York City, NYC) 라고도 불림
- 뉴욕 시는 맨해튼, 브롱크스, 브루클린, 퀸스 및 스테튼섬의 5개구(boroughs)로 이루어져 있으며, 중심부인 맨해튼에 월가, 브로드웨이, 타임스퀘어 등 주요 명소가 위치하고 있음
- 1970년까지 미국의 수도였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세계의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의 금융, 무역, 사회, 예술, 미디어, 기술 등 수많은 분야의 심장과도 같은 곳

## 3) 뉴욕의 문화예술

- 뉴욕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공연예술, 미술, 음악, 영화,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음
- 2,000개 이상의 문화예술 단체와 5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아트갤러리가 뉴욕 내에 있으며, 링컨센터, 카네기홀,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장, 미술관, 박물관 등이 밀집되어 있음
- 매년 4,700만 명 이상의 내·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



뉴욕 주 지도



맨해튼 세부지역

## 2. 공연장 · 문화공간

### 1) 링컨센터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, Inc.

- 공간 개요
  - 1956년 존 D. 록펠러 3세에 의해 설립, 11개의 상주단체와 6개의 건물(공연장)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·무용·연극·오페라·발레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
- 상주 예술단체 : 공연예술전문 링컨센터(1956년), 뉴욕 필하모닉(1956년),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협회(1957년), 줄리아드 음악학교(1957년), 뉴욕공립도서관 공연예술 전문 분관(1965년), 뉴욕시립 발레단(1956년),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(1973년), 링컨센터 영화협회(1973년), 링컨센터 극장(1980년), 아메리칸 발레 학교(1987년), 링컨센터 재즈(1996년)
- 주요 공간
  - 메트로폴리탄 하우스(1966년 9월 개관, 3,788석)
    -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전용극장으로 매년 9월~5월 까지 오페라 시즌 운영
  - 데이비드 게펜 홀(1962년 9월 개관, 2,738석)
    - 개관 당시 필하모닉 홀로 명명되었지만, 후원자를 기념하여 1973년 에이버리 피셔 홀로 변경, 2015년에는 데이비드 게펜 홀로 변경
    -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며 매년 180회의 연주회 개최
  - 데이비드 H. 코흐 극장(구. 뉴욕주 극장, 1964년 4월 개관)
    - 뉴욕시립발레단 전용극장으로, 2009년에 데이비드 H. 코흐가 1억 달러를 기부하여 링컨센터 재개발의 일환으로 개축 이후 극장명 변경
  - 비비안 버몬트 극장(링컨센터 극장 빌딩 내, 1965년 10월 개관, 1,100석)
    - 대규모 객석과 돌출무대로 구성된 공연장으로 브로드웨이, 오프 브로드웨이 및 오프-오프 브로드웨이 작품 공연
    - '우수한 연극, 대중적인 가격'을 모토로 공연 관람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역사회에 무료 입장권 제공
  - 엘리스 터리 홀(1969년 9월 개관, 재개관 2009년 9월, 923석~1087석)
    - 링컨센터 챔버 뮤직소사이어티의 연주홀로 연간 정기 연주회와 행사, 국내외 연주여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

주소 10 Lincoln Center Plaza, New York, NY 10023  
www.lincolncenter.org



<링컨센터-David Geffen Hall>



<링컨센터-David Geffen Hall 내부>



<링컨센터-뉴욕 공립도서관 공연예술전문 분관>



<링컨센터-데이비드 H. 코흐 극장>



<링컨센터-비비안 버몬트 극장 내부>



<링컨센터 투어-링컨센터 극장 빌딩>



<링컨센터 투어-엘리스 텔리 홀>



<링컨센터-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홍보 설치물>

## 2) 뉴욕 공립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

- 미국에서는 워싱턴 D.C의 국회도서관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
- 1895년 레녹스(Lenox)와 에스터(Astor)가 기증한 장서들과 틸덴재단(Tilden Foundation)의 신탁금 200만달러를 기반으로 설립, 1901년 앤드루 카네기(Andrew Carnegie)가 이동도서관 설치 기금으로 520만 달러를 기부하여 미국 최대의 도서관으로 발전함
- 총 5,200만 권 이상의 도서, 사본, 비디오, 악보, 필름, 지도 등을 소장
- 셰익스피어의 첫 작품집, 제퍼슨의 독립 선언문 자필 원고 등 희귀본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희소 가치가 있는 컬렉션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

주소 5th Ave at 42nd St, New York, NY 10018      **운영시간** 월,목,금요일 10:00-18:00  
화,수요일 10:00-20:00  
개관 1895년      www.nypl.org      토요일 10:00-18:00/일요일 13:00-17:00



<뉴욕공립도서관 외부>



<뉴욕공립도서관 내부>



<뉴욕공립도서관 내부>



<뉴욕공립도서관 내부>

### 3. 미술관 · 박물관

#### 1)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

- 런던 영국박물관, 파리의 루브르와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고 있음
- 이집트 미술, 그리스 미술, 중세미술, 유럽의 회화, 미국의 회화, 기타 극동 및 고대 중·근동 미술, 그리고 조각 · 공예 · 판화 · 무기류 · 코스튬 · 가구 등 선사시대 이래의 인류역사의 산물인 세계 각국의 유물 총 200만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음
- 아시아 지역과 관련하여 중국실·일본실 ·동남아실에 이어,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한국실 설치를 위한 경비와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기금을 지원하여 1998년 6월 한국관을 개관했으며, 400여 점의 한국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음
- 북부지역의 포트 트라이언 파크에는 중세 프랑스의 성당건축(聖堂建築)을 옮겨 세운 분관(分館) 클로이스터(1938년 7월 개관)에서 중세미술 전시 중

<b>주소</b> 1000 5th Ave. NY 10028	<b>운영시간</b> 일~목 10:00~17:30 / 금~토 10:00~21:00
<b>개관</b> 1870년	<b>휴 관 일</b> 1월 1일, 추수감사절, 크리스마스, 5월의 첫번째 월요일
<a href="http://www.metmuseum.org">www.metmuseum.org</a>	



<메트로폴리탄 미술관-외관>



<메트로폴리탄 미술관-전시관>



<메트로폴리탄 미술관-전시관>



<앙리 마티스-Dance>

#### 2) 뉴욕 현대미술관 MOMA, The Museum of Modern Art

- '모마(MoMA)'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뉴욕 현대미술관은 1929년 근대 예술을 미국에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
- 미술관은 6층 규모로 18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만 점이 넘는 소장품이 있으며, 앤디 워홀, 로이 리히텐슈타인, 잭슨 폴락 등의 현대 미술 작품과 고갱, 고갱, 세잔, 마네, 모네, 클림트, 샤갈, 마티스, 피카소 등 근대 미술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 보유
- [대표 작품] 반 고흐 '별이 빛나는 밤(The Starry Night)', 앤디워홀 '캠벨 수프 깡통(Campbell's Soup Can)', 폴 세잔 '목욕하는 사람(The Bather)', 로이 리히텐슈타인 '공을 든 소녀(Girl with Ball)', '물에 빠진 소녀 (Drowning Girl)', 파블로 피카소 '아비뇽의 처녀들(Les Femmes d'Alger)', '거울 앞의 소녀(Jeune Fille Devant un Miroir)'

<b>주소</b> 11 West 53 St., New York	<b>운영시간</b> 10:30~17:30, 금요일만 20시까지 운영,
<b>개관</b> 1929년	금요일 16:00~20:00 무료입장(UNIQLO Free Friday Nights)
<a href="http://www.moma.org">www.moma.org</a>	<b>휴 관 일</b> 추수감사절, 크리스마스



<뉴욕현대미술관-내부>



<뉴욕현대미술관-외부>



<작품-반 고흐 '별이 빛나는 밤(The Starry Night)'>



<작품-잭슨 폴락 'One: Number 31'>

### 3) 휘트니 미술관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

- 미국 현대 작가들을 후원하던 거트루드 밴더빌트 휘트니에 의해 만들어졌으며, 미국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지원하는 미국 미술 전문관
-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디오아트를 선보이고 컨템포러리 아트를 소개하는 선구자 대열에서 일찍이 입지를 굳혀 왔음
- 1973년부터 2년에 한번 씩 열리는 휘트니 비엔날레를 통해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스타 대열로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, 1983년 장 미셸 바스키아, 키스 해링 등의 전시회가 대표적 사례임
-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이미 고인이 된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것과 달리,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 작가들의 전시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색다른 매력이 있음

주소 99 Gansevroot Street, NY 10014 <b>운영시간</b> 월, 수, 목, 일 10:30~18:00, 금~토 10:30~22:00, 화요일 휴무	
개관 1966년	
www.whitney.org	
	
<휘트니미술관 외관>	<작품-키스 해링 'Ignorance=Fear/Silence=Death'>
	
<휘트니 미술관-전시장>	
	
<한국 작가 서도호의 작품 - '95 Horatio Street' (휘트니 미술관 건너편 건물 외벽에 설치)>	

### 4. 도시재생 현장

#### 1) 첼시지역-첼시마켓 Chelsea Market,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Meatpacking District

-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는 폐쇄된 정육 공장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고급 패션 거리로 바뀐 지역
- 첼시마켓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 늘어선 거리에 위치한 내셔널 비스킷 컴퍼니 공장 건물에 들어선 대형 식품매장으로, 식료품가게, 차 가게, 선물가게 등이 들어서 있음
- 1997년 첼시마켓 오픈 이후 연간 600만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내 푸드 홀로 자리 잡음

#### 2) 하이라인파크 High Line Park

- 1980년 폐쇄 이후 철거 예정이었던 1.45마일(2.33km)의 고가 화물 노선에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해서 2009년에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도시 재생의 대표적 사례
- 시민단체 '하이라인의 친구들(Friend of The High Line)'의 노력과 뉴욕 시의 투자로 조성되어 연간 1,500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이후 하이 라인 파크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, 구글 등 기업이 첼시로 이전함
- 철도 노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녹음을 형성해 현재 뉴욕에 없어서는 안 될 독특한 공원으로 뉴욕 시민들의 사랑 받고 있으며, 길게 늘어선 철도를 따라 첼시 지역의 풍경과 멋진 그래피티, 공공미술, 거리 음악가 등을 볼 수 있음



<하이라인파크>



<하이라인파크의 공공미술>

<첼시마켓 내부>

### 3) 거버너스 아일랜드 Governors Island

-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뉴욕 남쪽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원래 해안경비대가 주둔했던 국가 소유의 땅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었음
- 1996년 군인 이주가 완료되었고, 2002년 연방정부가 1달러 라는 상징적 금액으로 뉴욕시에 양도, 연방정부와 뉴욕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섬을 사용할 것, 영구적인 주거와 산업시설은 배제할 것 등의 큰 지침에 합의
- 매년 5월~10월에만 섬에 들어갈 수 있고, 액티비티 시설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전시회, 소규모 축제, 이벤트 등의 문화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
- 섬 곳곳에 요새나 대포 등 예전 군사요충지로서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 역사문화 공간으로써도 가치가 있는 곳



<거버너스아일랜드-어린이 놀이공간>

<거버너스아일랜드-아트페어 설치 작품>

## 5. 뉴욕의 공연예술, 브로드웨이

### 1) 브로드웨이 Broadway

- '브로드웨이'는 맨해튼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을 잇는 물리적인 길을 칭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연극, 뮤지컬계를 일컫는 말로 쓰임
- 뉴욕의 19세기 극장가는 지금 위치보다 남쪽에 있었으나 점차 브로드웨이를 북상하여 지금은 42번가 북쪽 타임스퀘어 주변의 한 구역에 집중되어 있음
- 전성기인 1928년에는 80개 극장에서 연간 264편의 연극이 상연되었으나, 현재는 통편을 목표로 하므로 스타 위주의 가벼운 희극과 뮤지컬 등이 주로 공연되며,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관객이 뮤지컬을 관람

### 2) 오프 브로드웨이 Off-Broadway

- 브로드웨이 외곽 지역의 소극장 거리를 지칭하며, 브로드웨이의 상업적 연극에 반발해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된 새로운 연극의 경향을 뜻하기도 함
- 오프 브로드웨이 에서는 무명작가들의 창작극, 1인극, 댄스,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상연되고 있음
- 500석 미만의 극장을 '오프 브로드웨이'라고 하며, 더 작은 극장에서 공연되는 것은 '오프-오프 브로드웨이'라고 함



<브로드웨이 극장-오페라의 유령>

<타임스퀘어에서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극장거리>

## 관람 공연 소개

###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

- 히치콕의 영화에 영감을 받아 셰익스피어의 '맥베스'를 새로운 형태로 재현한 작품으로 관객들이 자유롭게 공연장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관람
- 첼시의 매킷트릭 호텔(The McKittrick Hotel)을 공연장으로 사용, 5개의 층(과 비밀의 6층), 수백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3시간 동안 배우들이 각자의 동선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며 이루어지는 공연
- 정해진 순서와 방식이 없어서 관람하는 개개인이 모두 다른 공연을 체험하는 이머시브 연극(Immersive Theater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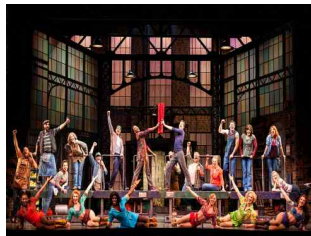
### 오페라의 유령 Phantom of the Opera



- 프랑스 작가 가스통 루르의 1911년 소설을 원작으로 뮤지컬 음악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주옥같은 음악과 더불어 뮤지컬로 재탄생
- 1986년 영국 허 머제스티스 극장 초연 이후 전세계 27개국 145개 도시에서 최소 15가지 언어로 공연됐고, 1억3천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음
- 전 세계 모든 영화와 연극, 발레, 오페라 등 티켓을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작품을 다 합쳐도 도달하지 못할 56억 달러(약 6조 3천억 원)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인 금세기 최고의 뮤지컬, 현재까지 계속 기록을 갱신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의 고전

### 킨키부츠 Kinky Boots

- 2005년도 개봉된 감독 줄리언 재롤드의 동명의 영화 《킨키 부츠》가 원작으로, 드랙퀸을 위해 부츠를 만든 W.J 브룩스 공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뮤지컬로 재구성
- 팝스타 신디 로퍼가 작곡을 맡아 화제가 되었으며, 2013년 초연한 해에 제 67회 토니어워드에서 6개 부문(작품상, 음악상, 안무상, 남우주연상, 편곡상, 음향상) 수상



## 6. 현지 관계자 간담회

### 1) 공연예술기획 제이삭 뉴욕 (JSAC New York) / 대표 : 박준식

- 공연예술 전문 매니지먼트사로 국가기관과 기업의 해외 문화사업에 함께하며 대한민국 예술(K-ARTS)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
- KBS 교향악단, 수원시립교향악단,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, 울산시립 교향단 북미 투어
- 국립무용단의 북미사업 유치, 국립오페라단 해외 컨설팅
- 기획공연 시리즈, 국내 아티스트 세계무대에 소개, 매 시즌 20회 이상 세계 최고의 공연장인 카네기홀, 링컨센터에서 기획공연 개최

#### ※ 뉴욕 공립도서관 협력 프로젝트

- 뉴욕 공립도서관과 '제이삭 뉴욕' 산하 비영리 단체인 '플:리(P:LE, Project:Library Effect)'와 손잡고 도서관에서 전시와 공연 등 문화 행사 개최
- 뉴욕 공립도서관의 공식 상주 단체로 선정된 플:리는 맨하탄 53가 뉴욕 공립도서관 분관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석학, 국제 기관등과 함께 연간 40여회의 무료 공연과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

# CHAPTER 03

## 연 수 결 과

### 1. 연수 성과

-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인 뉴욕의 미술관, 공연장, 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방문을 통해 참가자 대상 국제감각 향상 기회 제공
- 도시의 버려진 지역을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변화시킨 하이라인파크와 첼시 지역, 군사지역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 거버너스 아일랜드 등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 탐방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자들에게 국내 유사 사업과의 비교 분석 및 향후 지역에서의 관련사업 추진 시 벤치마킹 기회 제공
- 현지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기획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공공과 민간 예술단체의 협력 프로젝트 사례 탐구 및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기회 마련

### 2. 참가자 후기

※ 참가자별 결과보고 별첨 참조

충북문화재단 김병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뉴욕과 충북을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,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공의 포인트는 도입해볼만 함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미술) '미술전시품' 이외에도 건축, 시설물, 사인물, 아트샵, 조명, 마감, 동선, 카페, 교육프로그램들이 감각적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</li> <li>- (공연) 극장과 각각의 규모와 컨셉에 맞게 그 공간만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운영</li> <li>- (문화일반) 문화예술후원활성화를 위한 개인기부, 기업기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함, 충북학연구소, 문화관광해설사 연계 지역문화공부가 필요함</li> </ul> </li> </ul>
인천문화재단 박원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재생 공간 하이라인- 하이라인은 그 공간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그 공간만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방문객에게도 그대로 전달하여 지역재생 의미의 본질을 생각하게 해줌</li> <li>○ 예술의 영감과 자본 : 기업, 사업가, 개인 등이 문화예술 영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 자본주의 중심에 있는 뉴욕이 자본과 비경제적인 예술을 어떻게 동행시키는지 알 수 있었음</li> </ul>
세종시문화재단 최영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래된 도시이면서 문화의 도시 뉴욕 연수는 연수자에게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생사업의 가치, 그리고 민간협력 사업의 가치와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</li> <li>○ 다양한 사례 중 민간의 주도로 조성되기 시작한 하이라인파크, 첼시마켓, 거버너스 아일랜드, 덤보 지역 등의 사례는 지역발전 원동력이 '시민'에게 있으며, 재생사업은 '재개발사업'의 대체어가 아니라 오래된 것을 현대에 재해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석하여 활용하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음. 또한 이 사업을 주도한 근간은 '문화예술'사업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음</li> <li>○ 한편 민간인의 기부에 의해서 조성되어 성장한 휘트니 미술관, 현대미술관, 링컨센터 등의 사례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하며, 문화예술 강화를 통하여 가치지향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었음</li> </ul>
부산문화재단 정연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폐산업시설 재생 대안 필요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화현상을 겪은 첼시, 덤보지역 등은 새로운 건물로 뒤바꾸는 대신, 특 징있는 건물의 외형과 자연환경은 그대로 살려두고 문화예술 콘텐츠만으로 재생과 활성화라는 결과를 도출해 냄</li> <li>- 부산의 경우 폐산업시설 중 하나인 'F1963 고려제강 수영공장'은 공장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두고 문화예술 콘텐츠로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며, 건물 하나뿐이 아닌 일대가 문화예술 재생공간이 조성된다면 부산의 대표적 문화재생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고려 됨</li> <li>- 또한 군사시설이었던 '거버너스아일랜드' 또한 '부산시민공원'과 동일한 문화재생 사례로 인해 관심있게 둘러보았으며,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조건이나 자연환경을 제외한 문화예술 콘텐츠는 충분히 거버너스 아일랜드 못지않게 채워나가고 있다고 생각 됨</li> </ul> </li> <li>○ 새로운 트렌드형 공연예술 지원 확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계 곳곳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점차 확대하여 상연되고 있는 이머시브 형태의 공연들은 단순히 관객을 관람자로만 두지 않고 공연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연자로 인식함</li> <li>- '포켓몬고'나 '방탈출게임' 등의 인기있는 콘텐츠 같이 지금의 관객은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미션을 해결해나가는 '놀이'를 원하는데, 관객이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머시브공연이 현재의 트렌드와 맞아 떨어짐</li> <li>- 다양한 이머시브형태의 공연예술 작품은 관객들이 문화예술을 친밀하게 접 하는데 있어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관객개발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됨</li> </ul> </li> </ul>
서울문화재단 이주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연예술전문 링컨센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재단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공연장과 상주예술단체의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</li> <li>- 링컨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11개 상주예술단체에 대한 운영체계와 지원방 식을 참고하여 상주예술단체가 공연장을 구심점으로 보다 확장된 형태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마련, 지원제도 개선을 검토하고, 재단과 공연장이 함께 상주예술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자원조성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</li> </ul> </li> <li>○ 미술관 투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장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술관의 독자적 색깔을 지녀 미술관 간의 뚜렷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음</li> <li>- 현대예술에서 전시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. 각각의 갤러리가 서로 경쟁하는 모순적 관계에서도 예술적 움직임이나 관계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. 통합 전시 공간(integrated galleries)과 특정 매체를 전문으로 한 전시 공간(media-specific galleries)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

### 3. 연수 단체사진

	
<p>&lt;메트로폴리탄 미술관&gt;</p>	<p>&lt;거버너스 아일랜드&gt;</p>
	
<p>&lt;휘트니 미술관&gt;</p>	
	
<p>&lt;뉴욕현대미술관&gt;</p>	<p>&lt;브루클린&gt;</p>
	
<p>&lt;뉴욕 공립도서관&gt;</p>	<p>&lt;현지 전문가 간담회-JSAC 박준식 대표&gt;</p>